**미세먼지, 우리는 오늘도 호흡하기 힘들다.**

**201814003 김은정**

2018년 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미세먼지로 인한 공격을 많이 받아왔다. 미세먼지는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가 타거나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배출 가스에서 나오는 대기 오염 물질이 미세먼지의 주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연 우리는 미세먼지에 얼마나 피해를 받고 있을까? 우리가 늘 뉴스로 접하는 소식은 우리의 호흡기에 좋지 않다는 소식 뿐이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외로 미세먼지는 많은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Moneys라는 뉴스 소식지에서는 반도체와 전자업체들이 미세먼지에 의해 크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소식을 다루었는데, 뉴스 전문에 따르자면 미세먼지 농도가 300㎍(1㎍는 100만분의 1g) 이상이면 불량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업계의 분석이 있고 한 전자업체의 경우 미세먼지가 강해지면서 평균 불량률이 이전보다 0.4% 포인트나 증가했다는 결과를 환경부를 통해 밝힌 적이 있다고 한다. 또한 미세먼지는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우리의 몸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러한 미세먼지가 과연 우리나라만의 문제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양이 작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근접한 나라인 중국이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양이 많고 편서풍의 영향에 따라 그 미세먼지가 한국을 거쳐가며 피해를 입는다고 보는 입장이 많다. 한국은 땅이 좁다는 이유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권고기준과는 다르게 미세먼지 농도를 표시하는데 아는 바로는 WHO 권고 기준의 두배 가량 수치를 높게 설정해 두었다. 우리는 더 안 좋은 상황속에 살고 있음에도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식은 얼마나 부족하며 우리의 미세먼지는 해결방안이 존재하는 것인가? 우리는 매번 뉴스와 경고문자 등으로 미세먼지의 농도를 경고받고 한다. 특히 금년에 경고문자의 횟수는 황사보다도 심각할 정도였다. 봄과 겨울 황사를 조심해야 했다면 황사는 이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미세먼지에 관한 것들이 심각해 졌다는 이야기가 된다. 심지어 미세먼지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넘어온다. 더 심각한 것은 미세먼지가 더 작아지면서 초미세먼지가 되며, 방사성 물질을 지닌 초미세먼지가 된다면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는다는 것이다. 영화에서만 보던 호흡기를 끼며 살아가는 미래가 곧 도래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해결방안으로 우리는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공기청정기를 집안에 설치하거나 회사에 설치하곤 하지만 우리가 실제 집에 머무는 시간보다 바깥에 돌아다니는 시간이 많다면 사실상 이것 또한 무용지물이다. 이미 바깥에 있던 동안 몸 안에 미세먼지가 축적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미세먼지가 과연 중국의 탓인가 라는 생각이 들곤 한다. 시사IN에서는 전문가들은 매 년 미세먼지가 심해질 때마다 38%에서 많게는 70%까지는 중국에서 넘어온 것이라고 설명한다며 이것을 3080 이라고 비꼬는 이들도 있다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는 미세먼지의 생성을 중국을 탓하고는 한다. 나 또한 얼마 전까지는 미세먼지라는 단어에 바로 중국이라는 단어가 연관된 것처럼 바로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정말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왔을까 라는 의문이 들곤 한다. 실제적으로 공기중에 포함된 미세먼지의 출처를 알기 위해 협력을 하는 것도 아니며, 대부분의 자료들은 한국측에서 준비한 자료이기에 공정성이 떨어진다. 앞에 시사IN의 기사에 본문에는 지난해 7월 미국과 협력하여 공동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52%의 미세먼지가 한국에서 발생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나머지 38% 가량이 중국 그리고 9%가 북한에서 넘어온다. 조사 결과로 보자면 놀랍게도 절반의 미세먼지가 한국에서 만들어 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를 들어서 미세먼지의 발생이 중국의 탓만이 아님을 꼬집는 시사들도 간간히 등장하곤 한다. 하지만 사람들의 뇌리에는 뿌리깊게 중국이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는 생각이 강하니 두 나라의 공동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책임을 한쪽으로 전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만약 두 나라의 공동 연구가 이루어 진다고 하더라도 과연 책임을 질 생각이 있을까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